

통일에 대한 종교학적 성찰: 동질성의 회복†

박정환*

<국문요약>

본 논문은 종교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통일에 대한 성찰을 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한국인이 통일 이전에 동질성을 가지고 있었으며 한반도의 통일은 이러한 동질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통일을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다. 한국인이 공유하는 영성, 종교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영성을 다시 회복하려는 것이 본고의 주된 주장이다. 한국인은 통일 이전 유불선의 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풍류라고 하는 삼교를 포함하는 오묘한 도를 지니고 있었다. 한사상을 기본으로 하는 이러한 동질성은 남·북한이 분단되면서 남과 북에서 각각 다른 형태로 변환되어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이라는 형태로 남한에서는 기독교의 번성이라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통일을 대비하여 한국인이 통일 이전에 가졌던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의 얼을 다시 회복함으로써 남북한의 통일주체들인 사람의 통일을 이루어내는데 기여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주제어] 통일, 동질성, 주체사상, 풍류도, 기독교, 얼

* 박정환 (apjhwan@hanmail.net)

학위취득대학: 서강대학교

현직: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초빙교수

† 이 논문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사업과제인 "한반도 통일의 인문학적 접근 - 종교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에서 제출된 보고서 3장을 수정·보완한 것입니다.

논문접수일: 2017년 4월 1일, 논문수정일: 2017년 5월 28일, 게재확정일: 2017년 5월 22일

Religious Reflection on Unification: Recovery of Homogeneity

Park, Jung-hwan

<Abstract>

This thesis focuses on the reflection on unification which is seen from the religious perspective. The paper emphasized that Koreans were homogeneous before division and that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should prepare for unification under the assumption that this homogeneity can be regained again. It is the main argument of this essay to examine the spirituality and religiosity shared by Koreans and restore this spirituality. The Koreans had a mysterious Tao(道) that included three religion -confucianism, buddhism, taoism- before the entrance of the three religion. This article examines how homogeneity that Koreans have in common changes in the South and the North. This homogeneity based on Han-thought has been transformed into a different form in the divided North and South. While it evolved in the form of Juche Ideology(주체사상) in North Korea, in South Korea it has progressed in the form of prosperity of Christianity. I have shown that the divided North and South identities can eventually be brought together again. The main objective of this paper in preparing for unification is to contribute to the unification of the subjects of the two Koreas by restoring the homogeneity that the Koreans had before the division.

[Keywords] *Unification, homogeneity, Juche Ideology(주체사상), Christianity, Ear(얼).*

I. 서론

분열된 국가가 통일되는 과정에는 정치적인 요인과 경제적인 요인이 가장 가시적인 결과를 내겠지만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은 통합에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이 통일 될 때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했던 것은 불교였다. 이것은 분열되어 있는 나라에서도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고 이 가치들을 중심으로 통합할 때 진정 하나의 국가로 다시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민족이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공유해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본래 하나였던 민족이라는 전제를 가버여 여기저기 않고 분열이전에 공유했던 가치, 그 중에서도 종교적이고 영성적인 가치를 찾아보고 이러한 가치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고는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큰 전제를 가진다. 남한(이하 남이라고 함)과 북한(이하 북이라고 함)이 갈라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민족의 영성, 종교성을 하나의 동질성으로 본다. 그리고 분단이 되면서 이러한 동질성이 각기 다른 이질성으로 되어 가는 과정을 살핀다. 북한에서 이러한 종교성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변형되었고 드러났다고 본다. 즉 주체사상 속에서의 종교성을 찾아보는 것이다. 실상 북한의 사회는 일종의 신종교 집단과도 유사하다. 수령, 어버이로 대변되는 주체사상은 하느님 아버지의 일종의 변형된 모습이다. 이런 모습은 다른 어느 공산국가에서도 보이지 않는데 나는 이것을 한민족에게 내재되어 있던 종교성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주체사상이라는 이름으로 떠받들려지는 수령의 권위는 전체국가 체제와 억압에서 나온 것은 물론 당연하지

만 그 북한인민들에게 내재해 있는 한민족의 종교성의 발현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한의 기독교와 같은 급격한 성장세는 필리핀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역시 하느님 아버지를 찾는 그들의 내면은 한사상, 하느님사상, 멀리 단군에게까지 이르는 한울림 사상이 그 뿌리가 될 것이다.

분단으로 이렇듯 다른 모양과 형세로 남과 북에서 이질적이 되어 버렸지만 그 내면적 심성에는 여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한민족의 정서가 있어서 통일의 경우에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는 가치로 작용할 수 있다. 역사 이래로 한국인이 보여준 종교성은 이러한 공통된 종교성의 발현이었다. 신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른바 무교가 가장 먼저 한민족의 종교성을 대변하였으며 그 후 불교가 들어오며 한 지층을 형성했고 유교가 삶 구석구석의 가치체계를 형성하더니 그 지층위에 기독교라고 하는 외래종교가 이제는 무시하지 못할 힘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과정을 잘 보면 하나의 뿌리에서 갈라져 나간 남과 북의 모습이 보일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로 다시 뭉쳐질 수 있는 배경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건국대학교가 내어놓은 일련의 결과물은 남과 북이 이제는 동질성의 회복이라는 측면에 매달려서는 그 해법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다.¹⁾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각자의 체제 속에서 살아온 주체들을 이제는 각기 다른 가치 속에서 살고 있는 타자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그 동질성을 회복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타자로서의 이질성 자체를 그대로 두고 그 기반위에서 통일논의를 하자고 말한다. 일견 타당한 의견이다.

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연구단에서 통일인문학 총서가 22권까지 발행되었다.

하지만 하나의 민족이 분열되었다가 다시 합쳐지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 저변을 이루는 민족적인 감정이나 영성이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그 저변을 종교적인 것으로 보아 가장 원초적인 영성을 찾아보고 그 영성이 북한에서 어떻게 변형되어 갔는지를 추적하면 통일 후에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통합하는 가치체계로 작동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본고는 통일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남과 북의 통합이 내적 외적으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중심적인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종교를 매개로 한 내적인 통합을 이룸으로써 부작용을 최대한으로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족의 동질성을 이루는데 일조하려는 목적과 필요성을 갖는다.

따라서 논문은 민족 구성원의 종교적인 성격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살피는 것으로 종교학적인 시각에 그 범위와 한계를 둔다.

방법론적으로는 한민족의 종교적인 측면을 분석한 글들을 중심으로 통일의 과정에 이러한 정신적인 자산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찾아가는 방식을 취할 것이다.

논문의 구성은 한민족의 동질성을 가정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러한 가치들이 민족을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즉 분단이전에 5천년 역사를 이어오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가졌던 정체성이 무엇이었는가를 조명하는 작업을 제일 먼저 하고 분단아래 남북한 각 지역에서 이것이 어떻게 변형되어 나가고 있는가를 본 후에 통일 후에 이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통일 후에 한국인은 다시 하나의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지 등을 제시할 것이다.

통일에 대한 종교학적인 시각을 견지한 논문들은 몇몇 종교학자들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

졌고²⁾ 또한 본고에서 주제로 삼는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관한 논문도 눈에 띈다.³⁾ 하지만 통일에 대한 종교학적인 시각을 통한 분석은 아직 부족한 형편이고 기존의 논문들이 종교인식, 종교정책, 종교현황과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논문들과 다르게 민족 구성원이 본래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과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종교적인 측면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통일을 대비하고, 통일을 이룬 후에도 민족 구성원 전체의 실질적인 통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종교학적인 시각에서 통일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본론

1. 한국인의 동질성

-원초적 종교적 심성

통일을 이루려면 먼저 사상적 구심점을 찾아야 한다. 서양, 특히 유럽과 미국은 기독교적 가치로 국가를 통합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양상으로 한민족은 어떤 가치를 공유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먼저 한국인에게 본래 있었던 종교적 심성을 찾아보는 작업을 하고자 한다.

한국인에게는 본래 고유하고 본래적인 종

-
- 2) 정용길, 2004, “한반도 통일에서 종교의 역할”, 『한독사회과학논총』 14(2); 이찬수, 2013, “연구논문 : 한국 종교의 평화 인식과 통일 운동: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종교문화비평』 23; 류성민, 1998, “북한 주민의 종교에 대한 인식과 종교현황”, 『통일논총』 (16); 류성민, 1999, “특집 : 민족통일과 종교 ; 최근 북한의 종교 정책과 남한 종교인들의 대북 활동”, 『종교문화연구』 1; 박광수, 2009, “북한의 종교정책변화와 남·북한 종교교류성찰”, 『신종교연구』 21.
- 3) 정용길, 1995, 「남북한 통일후 동질성 회복을 위한 방안 연구」, 『전략논총』 -(6).

교적 심성이 있다. 최치원은 이를 풍류라 했고, 이것은 한사상과 연결되어 단군신화에서 드러난 하느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9세기 신라의 석학 최치원은 고대의 신화와 제천의례와 화랑조직을 통해 나타난 한국인의 영성을 통찰하고 이것을 해석하였다. 그는 화랑 난랑의 비문에서 이렇게 적었다.

“우리나라에는 깊고 오묘한 도가 있다. 이를 풍류라 한다. 이 교를 설치한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실려 있거니와 실로 이는 삼교를 포함한 것이요, 모든 민중과 접하여서는 이를 교화하였다”⁴⁾(김부식 1997, 93).

여기서는 한민족의 고유한 도(道) 곧 민족적 영성을 ‘풍류’라 했다. 진흥왕이 예로부터 있었던 영성을 ‘풍월도’라고 한데 대해 화랑제도를 통해 승화된 형태로 나타난 영성을 최치원은 풍류도라고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로 유교, 불교, 도교 등 삼교의 종지를 다 포함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접해서는 그들을 교화하여 사람다운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 했다(유동식 1986, 190). 풍류도가 유·불·선 삼교가 도입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인데 당나라에서 유·불·선 삼교를 수학하고 이에 통달한 고운 최치원이 고국에 돌아와서 우리의 민족적 열에 접해본 즉 놀랍게도 거기에는 삼교의 진리가 다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유동식은 이 풍류도를 한국인의 민족적 영성으로 보고 분석을 하면서 고운이 삼교에 통달할 수 있었던 것도 실은 그가 삼교를 포함하는 풍류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보았다(유동식 2004, 55-56).

모든 학자들이 수용하는 바는 아니나 이치

4)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럼 풍류라고 하는 것을 한국인의 최초의 영성으로 가정하고 본다면 한국인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영성은 유·불·선에 앞서는 그 어떤 것이라 추정할 수 있겠다. 이렇듯 외래종교인 유·불·선이 들어오기 전의 풍류라고 하는 것은 삼국시대의 통일을 이룬 신라가 공유했던 민족적 가치이고 이 가치는 화랑제도를 통해 더욱 발전하며 국가를 통일하는데 불교와 함께 큰 역할을 한다. 흔히 삼국의 통일을 이룬 배경에는 불교가 큰 역할을 하였음을 학자들은 주목한다. 하지만 신라의 통일을 이룬 배경에는 불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족의 가장 기초적인 영성인 무교와 중국에서 유입된 유교도 나름의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유·불·선이 전래되기 이전의 민족적 영성, 그 오묘한 도가 삼국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삼국의 통일에도 기여했으리라고 본다.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며 국가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그 오묘한 도는 한국인의 가장 원초적인 종교성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도구가 될 법하다.

유동식이 지적한 풍류도의 특징 중에 몇 가지만 빌려오면(유동식 2004, 43-77) 첫째, 풍류도의 기원을 고대 제천의례에서 나타난 하느님 신앙에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유·불·선이 전래되기 이전의 삼국이전의 국가에서는 영고나 제천 등 무교와 결합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 존재했다. 한민족의 최초의 국가 고조선의 단군신화에도 이러한 흔적이 있는데 환인의 아들인 환웅이 내려와 단군을 낳아 시조가 되었다는 것 또한 한민족의 의식에 하늘에 대한 신앙과 하느님 신앙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을 말해준다. 단군신화나 풍류도 모두 ‘하나(一)’, 또는 ‘하늘’과 같은 하느님 신앙의 테두리에 머물러 있는 공통점을 갖는 것이다. 즉 한민족의 원초적 영성은 풍류라는 말 속에서 도(道) 또는 하느님 신앙으로 확

장하여 나갈 수 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한국인의 원초적 심성이 주체사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작용하여 수령을 어버이로 찬양하는 형태로 드러났고 남한에서는 기독교가 그 세를 급작스럽게 불린 근원적인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고 본다.

둘째로 풍류도는 토착종교인 무교로부터 노래와 춤을 통한 제사 곧 가무강신의 전통을 이어 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국인의 고대 문화는 무교가 그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그 특징으로는 하늘과 교통하고자 하는 인간의 열망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한국인의 원초적 종교성은 역사가 진행되면서 차례로 들어났는데 고대사회는 무속이, 신라와 고려 시대는 불교문화가, 조선조는 유교 문화가 지배했다. 그리고 현대는 서구문화에 얽힌 기독교 문화가 한국 문화 형성에 있어 지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개인의 의식구조에도 투영되어 한민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정신적인 구조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인의 의식을 횡으로 잘랐을 때 앞서 살펴본 바와 똑같은 구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가장 밑에는 무교가 그 위에는 불교가 그리고 유교가 마지막으로 기독교 순으로 의식의 층층을 이루고 있다고 나는 가정한다. 즉 풍류도로 시작하여 외래종교가 그 위에 겹을 쌓으면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이 확장되었으며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늘에 대한 신앙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유·불·선의 전래 이전에 한민족에게 있었던 고유한 영성과 단군신화에서 보이는 종교성을 근거로 한민족에게는 하늘을 섬기는 신앙이 있었다는 원초적인 종교성을 가정하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이러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은 온전히 보존되지 않고 분단으로 인해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른 양상을 띠게 된다. 북한에서는 주체사상을 중심으로 개인숭배로 변화되었고, 남한에서는 기독교가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다. 이제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이 어떤 형태로 각각 남과 북에서 이질감을 드러내게 되었는지 밝히는 것이 다음의 순서다. 먼저 북한에서 이러한 한국인의 기본적 종교적 심성을 바탕으로 발전한 사상적 종교적 체계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북한의 종교-주체사상의 종교성

공산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가 종교를 인민의 아편이라고 말했던 까닭은 현실에서 소외받는 계층에게 종교가 일시적인 위안만을 주어 투쟁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집권하며 이러한 입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종교를 비과학적이라고 보았으며 미신과 종교는 과학적 인식이 부족하던 옛날에 자연현상을 어떤 귀신의 조화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생겨났다고 하였다. 김일성의 말을 살펴보면 이런 입장을 뚜렷이 알 수 있다.

종교는 반동적이며 비과학적인 세계관입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믿으면 계급 의식이 마비되고 혁명하려는 의욕이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종교는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김병로 2000, 15).

역사적으로도 종교는 “지배계급이 인민을 기만하여 착취, 억압하는 사상적 도구”이며 인민들의 자주의식과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이용되었다고 주장한다(김병로 2000, 16).

류성민(2006, 67-101)은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에서 「조선대백과사전」을 중심으로 북한에서 종교가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

가를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은 종교를

“하느님들과 같은 자연과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인간적인 존재나 힘이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맹목적으로 믿고 그에 의지해서 살게 하며 이른바 저승에서의 행복한 생활을 꿈꿀 것을 설교하는 반동적인 세계관 또는 그러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1831).

따라서 북한에서는 정권이 수립된 이후 정상적인 종교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없었다. 1990년대 들어 김일성종합대학 내에 종교학과를 설치하고 미주기독교학자의 초청강의를 개설하는 1992년에 개정된 헌법에서는 이전의 ‘반종교 선전의 자유’란 문구를 빼고 그 대신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삽입함으로써 종교 활동의 자유를 형식적이거나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러나 “누구든지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 데 이용할 수 없다”고 단서를 달아 정치적 판단에 따라 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이 단서조항은 1998년 9월 헌법개정시 앞부분의 “누구든지”라는 말을 삭제함으로써 법률상 종교의 자유는 이전보다 신장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994년에는 단군릉을 조성하고 대종교의 부흥을 추진하고 있다(김병로 2000, 17-18). 그러나 북한 당국의 변화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하며 실제적인 종교가 북한주민에게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은 극히 미비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상황은 종교 활동이 북한에

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동시에 다른 측면으로 문제를 제시할 근거를 제공한다. 즉 현대사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종교의 분포도를 보면 종교인과 비종교인을 나눌 때 종교인이 거의 80%에 육박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는 인간의 사회나 문화에서 종교는 분명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며 한 사회 전체가 종교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세속사회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강압적인 종교정책으로 인해 북한주민이 종교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무언가 종교를 대신하여 기능하고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게 한다. 극히 일부사회를 제외하고는 어디서나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종교가 조금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이는 필시 종교에 대응할 만한 역할을 무엇인가가 하고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종교를 대치할 만한 사상체계를 든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주체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에 의해 창안된 주체사상이 모든 제도와 문화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외부적으로 종교나 신에게 의지하는 대신에 인간 자체가 주인이 되고 주체가 되어 외세의 간섭이나 도움 없이 국가를 지탱하고자 하는 이념체계요, 사회정치 사상이다. 김일성대학에서는 이 주체사상을 북한의 우수한 인재들이 반드시 공부하고 숙달하고 있으며 정치제도에서 이 사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런데 이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상일 뿐만 아니라 그 사상을 넘어서서 한 개인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이상화를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필자는 1994년 김일성이 죽은 해에 방송에서 접했던 북한주민들의 모습에 적지 안이

충격을 받았는데 당시의 장면들은 북한 정신세계의 현주소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치 자신의 부모를 잃은 것 이상으로 오염하며 히스테릭의 상태를 보이는 북한주민들의 모습은 그들의 정신세계에 종교적인 부분을 바로 이것이 차지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하였다. 어머니 ‘수령’이라고 하는 김일성의 존재자체가 그들에게는 하나의 종교, 그 자체였던 것으로 보여 진다.⁵⁾

우리는 여기서 주체사상과 김일성주의와의 상관성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게 된다. 김병로(2000)는 주체사상이 김일성우상숭배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의 책과 논문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북한의 「철학사전」은 “주체사상 → 김일성동지혁명사상”으로 표시하여 주체사상에 대해 직접적인 설명을 하는 대신 김일성동지혁명사상을 찾아보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주체사상을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정의하며 김일성 혁명사상의 진수를 이루는 것을 주체사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김병로 2000, 109).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 한다”는 사람 위주의 철학적세계관은 주체사상의 출발점이었다. 신중심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미신적인 것을 믿는 대신 사람의 가치를 극대화시킨 것인데 여기서 배제되었던 신의 부재가 신격화의 모습으로 북한 주민에게 다가갔다. 즉 주체사상은 수령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주체사상이 종교적 신앙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대로 주체사상은 신이 아닌 인간이 주도권을 쥐고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운명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개개인이나 다시 인민의 운명을 쥐고 있는 김일

성에게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투사해 버린다.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인간의 갈망, 초인격적인 힘을 지닌 사람인 김일성이 흡수함으로써 신격화의 작업이 일어난 것이다. 신격화의 작업은 당 주도아래 주도면밀하게 이루어졌다. 일제시대에 시작한 김일성의 독립운동에 기적적인 요소를 가미해 축지법을 썼다느니, 나뭇잎으로 물을 건넜다느니 하는 일종의 종교적인 기적행위들을 만들어 내어 북한 주민들에게 정말 신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인격적인 존재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가 태어나는 날 백두산 위로 별이 하나 떠올랐다고 그의 탄생 또한 신성시한다.

신앙인들은 천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우리 백성들은 수령님을 아버지로 모십니다. 아버지로서 줘야 할 것을 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주석님을 자기 아버지로 떠받드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합니다(김병로 2000, 135).

이것은 김일성의 수령론이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고 있고 그 속에는 기독교적인, 특히 신에 대한 숭배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말해 준다. 김병로는 이렇듯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북한 사회에 기독교적 특성이 들어가 있는 까닭으로 김일성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일성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나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가치들을 긍정적으로 접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김병로 2000, 173-184). 김일성의 개인적인 성장배경으로 북한 사회 속에서 드러난 기독교적인 요소를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소련을 위시해서 지구상에 많은 사회주의 국가가 존재하였지만 어떤

5) 사회주의 자체를 일종의 종교로 간주하는 경우도 애초에 있었다. 종교학자인 니니안 스마트는 자신의 종교 분류에서 사회주의를 준종교로 간주하기도 한다.

나라도 지도자를 신격화하지 않으며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한민족의 독특한 정신세계를 설명해 주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한민족에게 가장 원초적 영성으로 내재되어 있던 종교성에서 기원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가 풍류로부터 기원한 한사상, 하느님 사상이고 둘째가 유교적 가치관이다. 이 두 가지가 북한주민의 의식세계에 수렴론이 들어가는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았던 요인이다. 특히 북한 주민이 사용하는 아버지수령에서 ‘아버이’라는 말 속에서 이렇듯 두 가지의 요소가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먼저 인간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는 아버지수령론은 하느님을 대체할 만한 인간의 신격화이다. 한국인에게 유·불·선 이전의 원초적인 영성이 하느님 신앙에 있었기에 인간에 대한 신격화 작업이 북한사회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조상숭배로부터 기원한 유교적 모습이다. 살아있을 때 부모에게 효도하는 부자유친에서 드러나는 아버지에 대한 효의 모습뿐만 아니라 조상이 돌아가신 후에 장자가 제사를 모시는 유교적 영향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다. 극동의 중국, 한국, 일본의 경우는 조상숭배의 주체가 각기 다른 식으로 나타나는데 중국의 경우는 관리로 진출한 아들이, 일본의 경우는 장인정신이라고 하여 능력이 있는 후손이 대를 잇는데 유독 한국의 경우만 장자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며 권위를 잇는다.

따라서 ‘사회주의 대가정’ 속에 김일성을 ‘아버이’로 만들고 아버지에게 충성과 효도를 다하도록 하는 개인숭배행위는 상당한 부분 이러한 하느님 사상과 유교이념 가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주체사상은 북한사회에서 지배자들의 단순한 통치이데올로기를 넘어서

그것은 이미 북한주민 개개인의 의식 속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초월적 신앙으로 내면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김일성교를 믿는 기독교인인 것이다. 북한사람들의 이러한 생활양식을 루이제 린저(1988, 154)는 “기독교적 생활을 하고 있는 기독교인 아닌 기독교인”이라고 하였다.

주체사상이 기독교와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종교양식으로서의 매우 유사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종교를 구성하는 형식의 큰 틀에서 주체사상과 기독교는 유사성을 띠고 있고 한민족의 영성이 북한집단에서 변형된 형태로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종교의 자리를 대체한 아버지수령은 실지로 종교적인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면적으로 언뜻 보기에 다른 지역에서 종교가 하는 역할을 이행하고 있는 듯이 보이지만 정말로 수령론이 종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내적인 평화와 안녕을 주어야 하고 종교가 주는 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버지수령론은 북한주민의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보인다. 그 예들은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을 수 있는 북한주민의 피폐한 현상뿐 아니라 북한 탈주민의 증언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 니니안 스마트(Ninian Smart, 1927-2001)에 의한 종교의 분류에서 준종교에는 속하겠지만 종교가 가져다 줄 수 있는 평화는 주지 못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이렇듯 북한에서는 서두에 제시한 한사상과 유교의 뿌리가 주체사상을 형성하고 아버지수령론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을 신격화 시키는 데는 일조하였겠지만 민족의 정신이나 민족성 그리고 한민족의 정신세계는 그 과정 속에서

왜곡되었다고 보여 진다. 분단되기 이전에 존재하던 민족의 영성이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들어서면서 이북의 주민들에게는 변형되고 왜곡된 상태로 나타났고 이것은 남한사람과는 여실히 다른 이질성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에서는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이 북한처럼 변형되었는지, 아니면 그 형태를 유지한 채 한국인의 심성 속에서 유지되고 있는 지 남한의 상황을 살펴보자.

3. 남한의 종교-기독교를 중심으로

남한의 경우는 북한과 다르게 자유주의 이념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개개인의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허락하고 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비율은 반반 정도이고 기독교가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쳐 28%정도, 불교가 22%정도에 이르고 있다. 남한은 현재 불교, 기독교가 거의 비슷한 세를 유지하는데 불교를 삼국시대에 전래되어 비교적 일찍 한국의 종교로 자리매김한 경우로 든다면 기독교는 18세기 이후 근대화와 함께 한국에 들어왔다. 기독교는 전래된 이후에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 급격하게 성장하여 다른 아시아권에서는 볼 수 없는 세력을 가지고 있고 대형교회는 그 특징으로 나타난다.

남한에서 이렇게 기독교가 급격히 성장하게 된 요인으로 전쟁의 경험과 분단갈등 구조를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남한의 기독교는 전쟁직후 교회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전쟁의 불안을 달래고 교회를 통해 안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사회심리를 바탕으로 급성장하였다. 기독교 국가인 우방국들의 원조가 기독교의 성장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했지만 전쟁의 불안과 사회의 아노미적 상황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절대적 신앙체계와 역동적 삶의 해석을

제공한 기독교는 종교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전쟁이라는 사회적 상황이 기독교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은 비단 한국만의 현상은 아니며 2차 대전 중에도 벌어진 세계적 추세라고 볼 수 있다(김병로 2000, 197).

남한의 주민들에게 나타난 종교적 현상을 보면 기독교가 가장 우세하지만 불교나 그 밖의 여타종교도 세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하느님 사상의 발전으로만 보기에 무리가 있다. 그러나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종교의 자유로 인해 다양한 종교가 유지될 수 있었고 그만큼 한국인에게는 종교적 왜곡이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단 남한에서 본래의 종교적 영성이 맞닥뜨린 도전은 북한의 상황과 달리 과학의 발전으로 인한 세속화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생산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종교적인 분포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세계의 종교인에 비하여 한국의 무종교인은 50%나 이른다. 따라서 이들에게 종교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스포츠나 그 밖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종교를 대체하고 있는 현상들일 것이다.

또한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는 종교인의 경우에도 각 종교의 특수성으로 인해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있었던 불교계 탄압이 그 예이다. 장로 대통령으로 인해 기독교는 많은 혜택을 누렸지만 반대로 불교계는 반발을 일으킬 만한 부당한 대우들이 이어졌다. 불교와 기독교 양대 종교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해서는 먼저 이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상대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절반정도 되는 종교인에게는 그들의 종교 간의 대화를 요구하며 세속적인 일반인에게는 민족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요구된다.

북한과 달리 남한에서는 서두에 제시한 민족적 영성이 심하게 왜곡되지 않고 기독교, 불

교, 한국종교, 세속화의 형태로 저변에서 유지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과 통일을 이루어 하나의 민족적 영성을 회복하는데 있어서 남한의 정신적인 상황은 북한보다는 안정된 상태로 보여 진다. 그러면 이러한 남과 북의 현실을 기반으로 하나의 민족이 되는 상태를 적시해보자. 통합을 위한 남과 북이 기울여야 할 부분을 구체적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4. 통합을 위한 노력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이라는 상이한 두 국가체제의 분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의 분열도 생산했다. 이렇게 볼 때 남북의 통일은 70년에 걸친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과정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의 민족적 통합을 포함하는 ‘사람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체제 지향적이고 정치적인 통일 담론에서 한 발 벗어나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통일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은 그것은 통일을 이루려는 주체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질적이 되어버려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개개인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문화적 통일’이며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김성민·박영균 2003, 88).

이런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작업을 한 사람은 강만길, 백낙청, 송두율 등으로 이들은 인문학적 사유를 전개한 사람들이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 41-70). 이들은 ‘분단시대’, ‘분단체제’, ‘경계인’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방법론을 내세우면서 민족적 감성에 호소하는 낭만적 통일론과 정치·경제적인 체제통합론을 넘어선 인문학적 관점에서 전개되는 통일 담론을 만들어왔다. 그러나 김성민은 이들이 문제의식을 바꾸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그 연구를 구체화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즉, 분단체제가 남과 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남긴 분단의 흔적과 상처들, 그리고 분단체제가 작동하는 사회 심리적 토양과 신체적 체화의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다(김성민 2003, 94).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장벽이나 북한이나 남한의 이질화된 면을 살펴야 하는 데는 배경이 있다. 조선조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일제에 나라를 빼앗겨 버린 상황과 광복이라는 기쁨을 채 맛보기도 전에 맞게 된 분단 상황은 70년을 이산의 세월로 살아야 하는 민족의 주체들을 양산했다. 비록 전쟁을 직접 체험하고 이산의 세월을 살던 1세대들이 이제는 사라져 가고 있고 2,3세대들에게는 이제 타국가의 국민처럼 떨어져 버린 북한이 타자로서 존재할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1세대들이 몸으로 부딪치며 느꼈던 분단의 상처들이 그 후속세대의 삶속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남에 따라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양상 한다는 데 있다(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2015, 162-218).

분단의 피해자인 한민족 스스로 적대와 증오감을 유발함으로써 분단체제를 오히려 강화하는 ‘역사적 트라우마’와 ‘분단 트라우마’는 분단과 통일의 또 하나의 연구분야로 이것은 한민족이 가진 민족적 욕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치유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김성민 2003, 98).

이렇듯 분열된 민족과 사람은 통일이전에도 통일을 이루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뿐만 아

나라 통일 이후에도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이전에도 정치적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동질성을 가진 하나의 민족이었음을 상기시키는 작업을 하여 아래로부터의 통일이 일어나도록 준비해야 하며 또한 통일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진정한 하나의 민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전에 사람의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작업으로는 이산가족 재회, 스포츠 외교, 역사적 작업, 서로에 대한 적개심 해소, 통일교육, 북한 난민, 탈북자를 돌보는 일 등이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일련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은 종교적인 요소와 종교외적인 요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종교와 관련되어 정책을 수립한다면 종교단체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특히 종교가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과 관련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을 종교계에서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의 동포를 한민족으로 받아들이는 정서의 함양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텐데 종교계가 이것에 앞장서고 이것이 정부의 정책으로 발전한다면 그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남북한의 통합을 위해 한국의 민족통합이념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의 종교를 고찰해야 할 것이고 더 세부적으로는 각 종교 간의 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남북한의 주민들의 정서를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가치체계를 만든다면 그 가치체계를 통해 남북한이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서두에 그 가치체계를 유·불·선에 앞서는 어떤 종교적 영성으로 제시하였다. 그것은 풍류라고도 이름 할 수 있고, 한 사상이라고도 불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한국의 영

성들을 보다 발전시키고 개발하여 남북한의 주민들이 공유하여 분단되기 이전의 하나 된 민족의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통일에 종교가 기여하는 또 하나의 부분이 될 것이다.

체제와 이념 대립의 현 상황에서 북한이 수용 가능한 가치체계를 사유함에 있어 남·북 두 체제의 공통된 기반으로서 분단이전에 공유했던 전통사상을 호명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테면 남북이 다 같이 과도기에 공감하는 이념으로서 홍익인간이 빈번하게 거론된다. “홍익인간사상은 우리 민족에게 고유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족 주체적이면서도 그것이 지닌 보편적 인류애는 어떠한 사상이나 이념도 뛰어넘어 인류 모두의 사상이기 때문에, 통일을 지향하는 궁극적 인간관과 사회관 및 세계관으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홍익인간사상은 남북이 공히 인정하는 고조선의 건국이념이라 할지라도 남북한의 체제와 이념, 역사관과 철학관의 차이로 인하여, 남북한에서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으며, 따라서 해석상의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이병수 2015, 81).

또한 통일과정의 기본 가치는 인권·평화·생태 등 보편적 가치가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서 성립할 것이다. 여기에 종교적인 가치가 중심이 되는 민족적인 영성을 확립한다면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갖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영성은 하느님 사상을 기반으로 하였다. 이러한 본래적인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 각 종교가 통일에 기여하고 대화를 하여 자기의 개별성을 유지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질적으로 되어 버린 한민족이 다시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을지, 회복한다면 어떤 형태를 띠게 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5. 포스트 통일-동질성의 회복

포스트 통일은 이후란 의미와 동시에 탈이란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즉 통일 이후는 통일 이전과 대비하여 그 이후이며 통일된 상태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포스트 통일에서 포스트는 이후라는 의미를 가지든 넘어서라는 의미를 가지든 간에 모두 다 통일된 상태를 함축한다(박영균 2016, 36-37). 이것은 통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일 이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독일통일 이후에 사회문제가 드러나듯이 진정한 통일은 단순히 이질적인 정치 경제 체제를 통합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체제 속에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내면의 문제, 즉 그들의 의식과 정서와 심리가 갈등하고 소통하는 과정의 문제임을 일깨워주고 있다(박영균 2016, 33-56). 또한 이렇듯 사람을 통합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민족적 영성, 종교적 영성이 하나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박영균은 통일 이후의 문제가 사람의 통일로 최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면 논의를 전개하고 있는데(박영균 2016, 33-56) 사람의 통일이라는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남북한이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영성에 주목한다면 통일이후에 한민족이 어떤 영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진정한 통일로 하나 됨을 이룰 수 있느냐의 여부를 보여주는 한 측면이 되리라고 본다.

필자는 서두에 유·불·선을 앞서는 민족적인 영성과 유교적 영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한민족에게 내려오던 가치인 종교적 영성을 다시금 회복하여야 할 시점이다.

본래 풍류란 일반적으로 동양종교가 추구하는 이상경에 대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다. 그것은 자연과 인생과 예술이 혼연일체가 된 삼매경에 대한 심미적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라의 고유한 영성으로서의 풍류도라고 할 때에는 일반적인 풍류의 의미와는 구별되는 성격이 들어 있다. 곧 심미적인 의미와 함께 종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이다(유동식 2004, 58).

중국으로부터 삼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 신앙은, 고대의 제천의례에서 보이듯이 하느님을 섬기는 “밝의 뉘”신앙이었다. 가장 원초적인 영성이 하느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말이다(유동식 2004, 58-59).

풍류라는 한자 그 자체가 또한 종교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바람 풍자는 중국 고전에서도 신령을 뜻하거나와 기독교의 성서에서도 성령의 역사를 바람의 흐름에 비유하고 있다. “바람은 제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희는 그 소리를 듣고도 어디서 불어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렇하다.”(요한 3:8). 바람이 신령이나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은 인류문화에 있어 보편적인 상징인 것 같다. 그러므로 최치원이 화랑의 영성을 불러 풍류도라 했을 때 그것은 “바람(영)이 흐르는 길”, 곧 종교적 영성을 지시하는 것이었으며 실로 삼교를 포함한 깊고 오묘한 것이었다(유동식 2004, 59).

유동식이 한국인의 원초적 영성을 풍류하고 제시한 바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국인에게는 한국인에게만 존재하는 원초적인 영성이 있었음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유·불·선 삼교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한민족에게는 이러한 유불선 삼교를 포함한 영성이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는 다시 한사상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독교가 발전할 수 있는 토양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그러므로 유·불·선과 기독교 모두 한민족이 본래 소유하고 있던 종교적 영성이 발단이 되어 각기 전개되어 나간 것이

라고 볼 수 있고 이 뿌리는 한민족에게 다시금 새로운 영성을 자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유동식은 이에 풍류도가 삼교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와중에 이 풍류도만 터득한다면 삼교를 다 터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유교의 본질을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克己復禮)는 데서 찾고, 불교의 본질을 “일심의 근원으로 돌아가는 것(歸一心之源)에서 찾으며, 도교의 본질을 ”사심 없이 자연의 법도에 순응한다“(無爲自然)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 세 종교는 다 같이 자기와 이 세상에 대한 집착으로써 형성된 자기중심주의의 세계를 극복하고 하늘이 내린 천성으로 돌아가기를 가르치는 것이라 하겠다. 천성이란 다른 아님 하늘이 주신 인간의 본성이며, 하늘의 마음이다(유동식 2004, 59). 한민족에게는 이렇듯 하늘이 본성을 주셨다는 의식과 하늘의 마음을 자각할 수 있다는 종교적 뿌리가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양의 종교라고 볼 수 있는 유·불·선의 사상은 곧 다시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가 대동할 수 있는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종교적인 심성은 지금의 한국의 종교지형도를 형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고대 한민족의 제천의례에서의 가무나 화랑수련에서의 가락은 다 같이 하늘의 영과 교제하는 것이었으며, 가무상신의 체험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신화에서는 천신과 승화된 지모신 또는 인간과의 혼인관계로 표현하고 있다. 풍류도는 바로 이러한 신인합일의 종교체험 위에 서 있는 영성이다. 그러므로 풍류도는 하늘의 영으로 돌아가려는 종교이다. 이것은 단순히 존재양식의 문제에 그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유출되는 윤리가 이를 입증한

다. 곧, 하늘과 하나가 되는 풍류도를 몸에 지닌 사람은 사심 없이 일을 처리하고(도교), 들어와서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성하며(유교) 모든 악한 일을 버리고 선을 행한다(불교)고 했다. 이토록 동양의 성현들을 통해 나타났던 인생의 도리를 풍류도는 그 안에 다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풍류도는 뜻 사람들에게 접해서는 그들을 교화하여 도에 입각한 사람다운 삶을 살게 했다. 풍류도는 실로 한국인으로 하여금 사람다운 삶을 이루게 하는 민족의 얼인 것이다(유동식 2004, 58-60).

한국인의 얼을 오늘에 되살린다는 말은 국민교육 헌장에도 나오는 말인데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고유 신앙이 바로 얼이며 동시에 유·불·선이고 동시에 하늘님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의 통일은 바로 이 얼을 다시 되살리는 작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얼은 다른 사람들과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본질적인 인간으로 돌아가도록 교화한다. 이것은 곧 우리 안에 있는 하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민족적 얼을 회복하는 것은 하늘님이 주신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고 사람의 통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그 주체들을 변화시키고 통합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한민족의 얼은 남과 북에서 각기 다르지만 변형된 종교형태로 이어져 오고 있었다.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의하여 표면적인 모습을 그 형태들을 달리하여 외부적으로 드러났지만 그 속에서는 하늘님 신앙에 대한 민족적 정서가 훼손되었을 뿐 그 잠재태로 남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남북이 하나로 될 때 하나의 민족적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그리 힘든 일만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민족의 ‘얼’은 불교문화를 매개로 전개되어

가기도 했고, 때로는 유교문화를 매개로 전개되어 나가기도 했다.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기독교와 서구문화를 매개로 전개되어 가고 있다. 민족적 삶의 공동체함을 통해서 형성되는 얼은 의식의 심층에 잠재함으로써 그 민족의 영성 또는 도를 형성한다. 이러한 영성은 그 민족의 종교를 형성하기도 하고, 외래 종교를 받아들여 이를 나름대로 발전시킴으로써 토착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북한에서와 같이 변형된 사상으로 드러나기도 한다. 한 민족의 영성은 개별적인 종교를 넘어서 형성되고 존속하는 것으로되 또한 개별적인 종교를 통해서 존속하며 발전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원종교사를 가진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다.

통일 후에 가질 민족의 영성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민족의 얼이 다시금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 지금까지와의 종교와는 또 다른 모습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민족의 영성은 다시금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따라서 포스트통일의 작업을 바로 민족적인 영성과 얼을 회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완성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치 경제적 통합이후에도 동질화되지 못하고 분열될 수 있는 위험성을 줄이는 것은 하나의 민족이었던 공동체로서의 의식이 민족적 영성, 얼로 다시 하나 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III. 결론

통일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북한사회의 종교적 특성은 통일과정에서 많은 사회갈등과 심리적 상실감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들의 느낌과 유사하다고 볼 때 북한인들이 통치자

없이 살아가는 데서 생기는 심리적 공허감이 있을 것이다. 지도자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사는 것은 무언가를 잃어버린 목적 없는 삶과 같을 북한인들에게 종교생활과 신앙을 통해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정신의학, 심리학, 사회학, 상담학의 분야에서 이러한 심리갈등을 돕는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김병로 2000, 202).

이러한 준비를 해나가면서 통일을 준비하는 주체는 정부만이 아니라 종교계를 포함하여 다원화를 띠면서 각 분야의 힘들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특히 본고가 강조하는 바인 종교의 통일에 대한 기여도를 종교계가 각성하고 인지하여 나름의 역할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의 주체에게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 사이의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민족의 정신적이고 종교적인 통합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 대안의 하나로 나는 한국인의 영성과 종교성을 중심으로 포스트 통일을 맞이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제까지 나는 통일을 바라보는 데 있어 한민족에게 태고부터 내려오는 민족적인 얼과 동질성이 있다고 전제한 후 통일을 통해 이 얼을 되살려 동질성을 회복해야 함을 말하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근거로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형태로, 어버이 신앙의 형태로 변형된 하느님 신앙이 존속하고 있었음을 말하였고 이러한 형태가 통일이 되면 다시 하느님 사상과 한민족의 얼로 변화되어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있음을 말하였다. 이를 위해 정치경제계 뿐만 아니라 특히 종교계에서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동질성의 회복이 가능하다는 일단의 제안에서 끝을 맺는다. 우리 민족이 비록 지금은 남과 북으로 갈려서 분단되어 있지만 본래 하나의 민족이었고 공통의 정신적 자양분을 갖고 있기에

다시 하나로 합쳤을 때 다시 같은 민족적 영성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상』 81: 231-240.

- 김도식. 2011. “통일인문학의 개념 분석”. 『통일인문학』 51: 155-172.
- 김병로. 2000. 『북한사회의 종교성 : 주체사상과 기독교의 종교양식 비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
- 김부식 저. 고전 연구실 옮김. 1997, 『삼국사기』 상. 서울: 신서원.
- 김성민. 2003. “통일학의 정초를 위한 인문적 비판과 성찰”. 『통일인문학논총』 56: 85-113.
- 김영수. 1991. “북한정치문화: 주체문화와 전통정치문화.” 서강대 박사학위논문.
- 루이제 린저, 강규현 역. 1988, 「루이제린저의 북한이야기」. 서울: 형성사.
- 류성민. 2003. “주체사상과 종교”. 『종교연구』 32: 27-54.
- _____. 2006.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이해”. 『종교연구』 42: 67-101.
- 박영균. 2016. “포스트통일과 민족적 연대의 원칙”. 『포스트 통일 민족적 연대를 꿈꾸다』 통일인문학 연구총서. 33-56.
- 변진홍. 1994. “주체사상의 종교이해”. 『카톨릭신학과 사상』 12: 253-266.
- 유동식. 1986. “기독교사상사”. 『한국종교사상사』.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185-311.
- _____. 2004. 『풍류도와 한국의 종교사상』.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이병수. 2015. “통일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관점의 전환”. 『통일인문학』 61: 63-87.
- 허명철. 2010. “민족적 시각에서 보는 통일담론”. 『통일인문학』 50: 303-320.
- 홍근수. 1993. “주체사상과 기독교”. 『신학사

통일에 대한 종교학적 성찰: 동질성의 회복 67

Non-Korean References

- Bellah, Robert N. 1970. *Beyond Belief*. New York: Harper & Row.
- Durkheim, Emile. 1961. *The Elementary Forms of the Religious Life: The classic sociological study of primitive religion*. New York: Collier Books.
- Tillich, Paul. 1964. *Christianity and the Encounter of the World Relig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국문참고문헌의 영어표기
(Korean References in Roman Alphabet)

- Kim Do-Sik. 2011. "Analysis of Concepts of Unification Humanities". *Unified Humanities* 51: 155-172.
- Kim Beoung-Ro. 2000. *Religiosity in North Korean Society: Comparison of Juche Ideology and Christian Religious Style*.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Research Series.
- Kim Boo-Sik. Transposition of Classics Laboratory. 1997. *Samguksagi*. Seoul: Shinseo Won.
- Kim Sung-Min. 2003. "Human Criticism and Reflection for the Realization of Unificatio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 56: 85-113.
- Kim Young-Soo. 1991. "Politics and Culture of North Korean: Subject Culture and Traditional Political Culture," Sogang University Doctoral Thesis.
- Liege Ringer. Kang Kyu-Hyun. 1988. *The Story of Liege Ringer's North Korea*, Seoul: Former.
- Ryu Sung-Min. 2003, Juche Ideology and Religion, *Religious Studies* 32: 27-54.
- _____. 2006. "Understanding about Religion in North Korea". *Religious Studies* 42: 67-101.
- Park Young-kyun. 2016. "Principles of Post Unification and National Solidarity." In *Dreaming National Solidarity of Post-unification*. Unification Humanities Studies Edition. 33-56.
- Byun Jin-Hong. 1994. "Religious Understanding of Juche Ideology". *Catholic Theology and Thought* 12: 253-266.
- Ryu Dong-sik. 1986. "The History of Christian Thought." In *The History of Korean Religious Thought*.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185-311.
- _____. 2004. *Pungryu-do and Religious Thought in Korea*.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Lee Byeong-Su, 2015. "Critical Considerations and Transition of Perspective on the Reunification Plan, *Unification Humanities* 61: 63-87.
- Huh Myeong-Cheol. 2010. "Discourse on Unification viewed from a national perspective". *Unification Humanities* 50: 303-320.
- Hong, Keun-Soo. 1993. "Juche Ideology and Christianity". *Theology Ideology* 81: 231-240.